

오늘의 성가

입 당	461	나는 주님 포도밭	성 체	168 160	오묘하온 성체 하느님의 어린양
봉 헌	215 512	영원하신 성부 주여 우리는 지금	파견	31	이 크신 모든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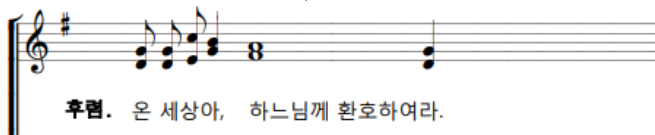
말씀의 초대 ■ 이사야예언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시리라고 한다(제 1 독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서는 일흔두 제자를 파견하시며, 평화를 빌어주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하신다(복음).

제 1 독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6,10-14 ㄷ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과,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과,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6(65),1-3 ㄱ.4-5.6-7 ㄱ.16 과 20(◎ 1)



-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러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제 2 독서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6,14-18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빕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콜로 3,15.16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알렐루야

복음

<너희의 평화가 그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12.17-20
 그때에 주님께서서는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들쭉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 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일흔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동현(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 ▪ 광창진(스테파노)의 영혼을 위하여 - 광 루시아 ▪ 김시영, 최성규의 영혼을 위하여 - 최 율리아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도, 수도자의 성소의 은총을 구하며 - 성소 후원회 ▪ 오홍순(카타리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오.사.모/홍원기(에우세비오)가족 맹완식(어거스틴), 최태영(스테파노), 손영학(빈첸시오), 임광선(요한) ▪ 최안나, 안갑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최 율리아나

◆ 공동체 소식

◆ 지난 주 주일 헌금과 교무금 납부현황은 다음 주(7/14) 주보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야외미사

- 일시: 7월 14일(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Donaldson Park Grove 2
- 미사 후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 1년 구독 비용: \$48
- 구독 기간: 2019년 9월~ 2020년 8월
- 개편되는 주보에는 매일미사 독서와 복음이 수록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백영숙 헬레나 (732-841-9982)

◆ 매일미사 책 배부

- 7월 매일미사 책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백헬렌 자매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휴무 안내

- 7/1(월) - 7/9(화)까지 사무실 휴무입니다
- 미사 지향 신청 및 교무금은 총무분과장님께 전달바랍니다.

◆ 신자등록서 배부

- 아직 신자등록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후보 광고주 모집

- 칼라주보로 새롭고 알차게 꾸미려고 합니다. 비용 충당을 위해 광고도 다시 부활하려하니 광고주 모집에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광고는 한 란에 격주로 년 200불입니다.
- 친교실 게시판에 공시된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St. Joseph Church Vacation Bible Study

- 일시: 7월 15일 - 19일, 오전 9시-12시
- 참가대상: 4세-10세 아동(Pre-K to 5th grade)
- 참가비: \$35/1명, \$65/2명, \$90/3명 이상
- 접수마감: 7월 10일(수)까지
- 문의: St. Joseph Religious Education Office 732-356-0645

◆ 2019 북미주 성령대회 (24차 미동북부)

- 일시: 7월 20일(토) - 21일(일)
- 장소: Felician University
- 참가비: \$40 (토-점심, 저녁 / 주일-점심 포함)
- 신청 및 문의: 정 요세피나 (908-672-1515)

◆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평화의 모후께 마치는 목주기도 백만단 봉헌 달성 기념 미사

- 일시: 7월 26일(금) 오후 8시
- 장소: 뉴저지 성 미카엘 성당
19E.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 일정: 8:00 pm 미사
9:00 pm 목주기도(영광의 신비)
9:30 pm 리셉션(노틀담 학교 카페테리아)

◆ 7월 푸드 콜렉션

- 푸드 콜렉션이 7/27-7/28 양일간 있을 예정입니다.
- 가지고 오신 비 신선식품을 성당 입구에 비치된 상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소공동체 소식

◆ 사목회의

- 일시: 7월 7일(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7월 15일(월) 저녁 8시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전례회의

- 7월 전례회의는 없습니다.

◆ 구역모임

- 에디슨
- 일시: 7월 7일(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KCC 성당 재정 보고서
(2018년 7월~2019년 6월)

항목	금액
감사헌금	\$47,656.00
교무금	\$92,770.00
주일헌금(평일대축일헌금 포함)	\$48,124.50
이차헌금 (Utilities)	\$2,353.00
주일식사 판매	\$2,720.06
기타 수입	\$2,615.36
이자 수입	\$1,125.00
총 수입	\$197,363.92

항목	금액
성당 운영	\$6,002.77
기부금	\$1,450.00
시설 및 장비	\$3,017.83
선물	\$1,952.72
사목경비	\$6,624.84
비품 구입	\$1,481.53
우편물 및 사무실 물품	\$2,908.80
Pastoral Support	\$1,396.34
사목회 회의	\$894.93
인건비 (세금)	\$4,118.38
서비스	\$3,183.19
급여 (사무장/지휘자/반주자)	\$37,084.80
주일 식사비용	\$8,651.40
컨퍼런스	\$1,689.55
보험	\$970.00
총 지출	\$81,427.08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 루카 10,1-12,17-20 (연중 제 14 주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루카 10,2)

1. 예님께서 72 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일꾼은 누구인가요? 주님께 일꾼을 보내 달라고 청해 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가거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루카 10,3-4)

2.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루카 10,17,20)

3.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순간이 있나요? 나의 세례명이 위로와 기쁨을 가져왔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루카 10,25-37 (연중 제 15 주일)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루카 10,31,32)

1. 예수님께서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서도 지나치는 마음들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내 도움이 필요했던 누군가를 지나쳤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루카 10,33)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루카 10,34)

2. 하느님의 마음은 언제나 가엾은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연민입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경험이 있나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루카 10,36)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3.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을 찾는 기쁨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 주는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요?